

제13회 한일미래포럼 in 오사카

인천대학교 정유선

저는 인천대학교 4학년 정유선입니다. 저는 아시아 희망캠프가 주최한 프로그램인 한일미래포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오사카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도착해서 호텔에 가기 전 오사카시립청소년센터에서 개회식을 하고 집행위원소개를 하고 일본학생과 한국학생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의 팀에 따라서 조별로 앉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도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우리 팀의 통역역할을 맡은 미래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학생들 모두 한국어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거의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일본학생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학생들이 굉장히 유한 태도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질문도 조심스럽게 해주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논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토의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졌고 그 토의내용을 정리하고 다듬어서 발표할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언성이 높아지거나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기서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저도 일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뉴스에서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했고 그 뉴스를 접한 저는 모든 일본인이 아베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본 쪽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토의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팀원이 다같이 이동하였습니다. 저녁메뉴는 오꼬노미야끼였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팀원끼리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청소년센터에서 짐을 가지고 호텔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첫 번째 날에 토의한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PPT와 스크립트제작을 하였습니다. 구체화를 다 시킨 후 점심으로 규카츠를 먹고 왔고, 다시 청소년센터로 돌아와서 PPT와 스크립트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꼬박 6시간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저녁으로는 쿠시카츠를 먹었습니다. 매우 맛있었고 점心和 저녁을 먹으면서 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이 많이 들었고 다음날 포럼이 끝난다는 것에 매우 아쉬워 하였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 있었고 청소년센터가 문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PPT와 스크립트가 미완성이기 하였지만 각자 만든 PPT를 합치기만 하면 되었고 스크립트는 번역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PPT

합치는 것은 하야토씨가, 스크립트 번역은 미래씨가 맡아서 호텔에서 작업해 주었습니다. 하야토씨와 미래씨 덕분에 모든 작업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PPT를 빔 프로젝트로 앞에 띄워 놓고 스크립트를 참고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발표는 정말 떨렸지만 제 생각에는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은 아이리씨와 성철씨가 너무 잘 해주어서 위기를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가 발표를 마친 후 마니또를 발표하고 마니또를 많이 맞추고 미션을 많이 한 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3쌍이나 서로에게 마니또였지만 많이 맞추지는 못하였고 결국 선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물보다 더 값진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너무 기뻐고 재미 있었습니다. 저는 대외활동은 처음이였고, 일본어도 하나도 못해서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였지만 모두 다 착하고 말도 잘 걸어서 우리 팀과는 아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포럼이 열린다면 다시 참가하고 싶은 만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토의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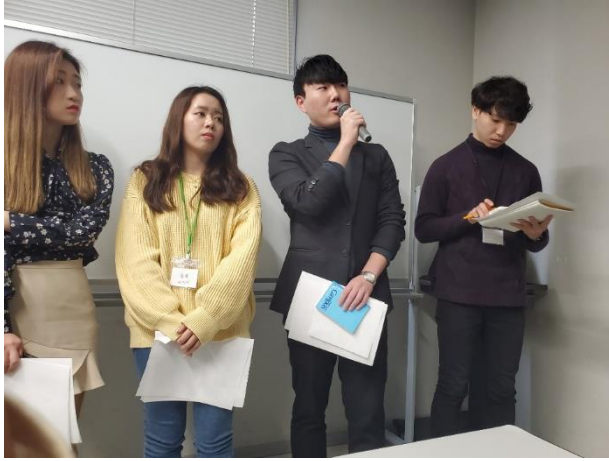
▲토의하는 사진



▲팀원들과 규카츠를 먹는 사진



▲발표하는 사진



▲ 발표 후 질의문답



▲ 저녁식사 후 팀원들 사진



▲ 마니또와의 사진



▲ 마니또와의 사진2



▲ 토의 후 찍은 팀원사진



▲ 마지막 날 다 같이 찍은 단체사진